

“신남방정책 적극 협력할 것”

한-태국 정상회담

한-아세안 회의 성공 노력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브리짓 잔오차 태국 총리와 한·태국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의 총리실에서 한·태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태국 우호 증진 방안,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등의 의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한국 대통령의 태국 공식 방문은 2012년 1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1960년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1958년 수교,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을 언급하며 지난 60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두 나라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리짓 총리는 태국과 한국은 양자 차원의 협력 뿐 아니라 한·아세안 차원에서 역내 포괄적 발전을 위해 협력할 여지도 많다고 평가했다. 두 나라 간 신뢰와 우정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두 정상은 그동안 관광·문화 분야 등 두 나라 국민 간 활발한 인적 교류가 한·태국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국어·한국학을 배우는 태국 학생들에 대한 지원



태국을 공식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브리짓 잔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강화, 양국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위해 두 나라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브리짓 총리는 태국의 '태국(Thailand) 4.0' 정책과 한국의 혁신성장 정책 사이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태국 4.0' 정책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태국의 국가개발 전략이다. 로봇·바이오·미래차 등 12개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정상은 로봇·바이오·미래차 등

두 나라의 신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태국이 2010년부터 한국 해군·해병대의 다국적 다목적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 훈련에 매년 참가해오고, 한국 기업의 태국 호위함 수주 등 두 나라 간 활발한 국방·방산 협력을 진행해 온 것을 평가했다.

나아가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 계기로 체결되는 한·태국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을 통해 군사교류 및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11월 부산에서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태국 주도로 결성된 메콩 지역 경제협력체 에크멕스(ACMECS)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브리짓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스1

‘국방·방산’ 협력 강화... 한-태국, 지소미아 협정 체결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국장급 공동워킹그룹 구축 등 정부 협정 1건·기관 약정 5건 MOU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 정부가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군사 교류 및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브리짓 잔오차 총리는 2일 오전 한·태국 정상회담 후 두 나라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담은 정부 협정 1건과 기관 약정 5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했다.

정부 협정인 한·태국 군사비밀정보 협정은 두 나라 간 협력 아래 생산되거나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에 관해 보호 절차를 규정, 군사교류·방산협

력 및 기술교류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

태국은 한국이 군사비밀 관련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다섯 번째 아세안 국가이자, 전체 국가 중에는 22번째다.

한국은 전 세계 34개국 및 1개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 밖에 미래 신산업 분야(로봇·바이오·스마트전자·미래차 등)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 공동워킹그룹 구축 및 인적·정보 교류 확대한다는 내용의 4차 산업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물관리 협력, 한국어 교육협력, 스마트시티 협력, 철도협력 MOU를 체결했다.

서명식 이후 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태국 국민 간 우호 증진과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방안,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안보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태국과의 협력 증진을 통해 오는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뉴스1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연구기관에 낙하산 배제 시스템 구축할 것”

최기영 과기부장관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2일 “기관장 포함해 인재를 발굴하는 문제는 지위 높은 사람 중에 수동적으로 아무나 뽑는다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게 아닌 인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당에서 전문위원하다가 (과기부 산하) 특정 연구기관에 기관장, 감사, 이사, 본부장

등으로 낙하산 인사가 꽂혀 나가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해달라”라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가령 화학쪽 연구기관이라면 경원 낙하산이 아니라 화학 분야에 최고로 유능한 사람이 화학연구소장으로 임명돼 3~4년 임기가 아니고 최소 10년간 한 영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를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하고 싶으면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능동적 인재 발굴 시스템에 당연히 정치적 배려는 없어야 한다”며 “제 권한이 허용하는 한 적재적소에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모신 만큼 임기는 보장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1

민주당 군산지역위, 대의원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영대, 이하 군산지역위)가 출어진 조직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군산지역위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대의원 및 당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해서 김갑준 군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사무총장, 김진표 의원, 송영길 의원, 전해철 의원이 축하 동영상을 통해 대의원대회를 축하했다.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내용을 겪었던 군산지역위가 오늘 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신영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 된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영대 위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다기와 시민 모두가 합쳐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군산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데 먼저 전 당원이 똘똘 뭉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대의원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당원 및 대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정가는 ‘승리하는 민주당, 화합하는 민주당, 민주적인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내년 초 치러지는 4.15 국회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전북도, 오늘부터 ‘지진안전주간’ 추진

전북도는 3일부터 12일까지를 10일간 ‘지진 안전주간’으로 정하고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진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도는 지진 행동요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안내하고자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BS) 및 옥외 전광판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진 안전 주간 기간 전주시 등 14개 시군의 주요 기차역 및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을 선정해

지진 안전 의식 캠페인 및 가동홍보를 펼친다.

또 무주 반딧불 축제(8월 31일~9월 8일) 및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9월 6일~8일)와 연계한 생활 밀착형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다가오는 10월 안전한국 훈련 주간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진 안전요령을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성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